

**어린이의 대표적 눈꺼풀 질환 치료법**

아랫눈썹이 눈동자를 찌르거나 선천적으로 눈꺼풀이 동자를 덮을 정도로 처져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있다. 이 두 가지는 어린이들에게 잘 나타나는 대표적 안과 질환으로 시력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조기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.

**1. 덧 눈꺼풀 질환**

아래 눈꺼풀의 속눈썹이 눈의 까만 동자를 찌러 눈에 자극과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다. 보통 동양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이 증상은 아래 눈꺼풀의 속눈썹 주변의 피부와 근육의 양이 선천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것이 원인이다.

즉 아래 눈꺼풀의 속눈썹이 과도한 피부와 근육에 의해 눈의 까만 동자 쪽으로 밀려들어가 동자를 찌르게 된다. 대부분 아래 눈꺼풀에 발생하지만 위꺼풀에도 생길 수 있다.

증상은 눈을 자주 비비거나 눈곱이 끼고 눈물이 고일 수 있다. 밝은 데서 눈을 뜨기 힘들어한다. 아래쪽을 볼 때 아래 속눈썹이 까만 동자를 더 심하게 찌르기 때문에 쉽게 눈이 피곤해져서 책을 오래 보지 못한다. 덧 눈꺼풀이 심한 경우에는 난시가 동반되기도 한다.

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교정될 수 있어 신생아나 영유아기 때는 치료 없이 기다려 본 후 만 3세 때까만 동자의 손상(염증) 유무, 시력 검사 등을 해본다. 만 3~4세 이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술로 교정해 주는 것이 좋다.

**2. 선천성 안검하수 (눈꺼풀치짐증)**

위 눈꺼풀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근육(위 눈꺼풀 올림근)이 선천적 발육 이상으로 힘이 약해서 위 눈꺼풀이 아래로 처진 경우다. 한쪽 눈 또는 양쪽 눈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.

선천성 안검하수가 있는 영유아는 정면의 물체를 보기 위해 이마를 위로 올리고 턱을 위로 쳐드는 자세를 한다.

양쪽 눈 안검하수의 경우 대부분 이마를 위로 올리고 턱을 위로 치켜올림으로써 양쪽 눈을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은 정상적으로 발달한다. 따라서 만 3세 이후에 미용을 위해 수술을 받으면 된다. 한쪽 눈의 안검하수인 경우도 아래로 처진 위 눈꺼풀이 시선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면 마찬가지로 만 3세 이후 수술을 해준다.

그러나 처진 정도가 심해 아래로 처진 위 눈꺼풀이 시선을 가리면 시력 발달이 안되고 약시가 초래될

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시력 발달을 도와주는 치료에 치중해야 한다. 생후 2~3개월의 아주 어린 나이에 특히 그렇다.

즉 반창고를 이용해 처진 위 눈꺼풀을 이마에 끌어 올려붙임으로써 눈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 눈을 하루 일정 시간 안대로 가려줌으로써 안검하수가 있는 눈을 강제로 사용하게끔 한다.

이런 방법으로도 시력 발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.

선천성 안검하수의 경우 수술을 받아도 정상인의 눈처럼 위 눈꺼풀을 자유자재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 정면을 볼 때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아래를 쳐다볼 때는 위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눈 위의 흰자위가 보이게 되고 한쪽 눈 수술 시 양쪽 눈의 모양이 차이가 날 수 있다.

수술 후 상당 기간 잠잘 때 눈을 뜨고 자게 되며 이때 눈의 까만 동자에 상처 및 염증이 발생하지 않게 안 연고를 바르도록 해야 한다.

**섬진강·보성강 유역 주민 디스토마 감염**

섬진강, 보성강 유역 주

민들 상당수가 디스토마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. 지난 3월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2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섬진강과 보성강 유역의 곡성·구례·보성군 등 3개 지역 주민 1천 57명을 대상으로 디스토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률이 평균 18.4%로 나타났다.

섬진강 유역의 구례 지역 주민들은 180명 중 69명(감염률 38.3%)이, 곡성은 451명 중 104명(23%)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보성강 유역의 보성 지역 주민들은 426명 중 21명(4.9%)에게서 디스토마 균이 발견되었다.

이 같은 디스토마 감염은 수질이 오염된 강, 하천에 서식하는 참붕어, 눈치, 피라미, 새우, 빙어 등 담수어를 날 것으로 먹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한편 도는 3월부터 5월말까지 모든 시·군 담수어 및 주민 감염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, 담수어 생식 금지 등 디스토마 예방 요령을 각 시·군에 시달했다.

도 관계자는, "도 내에서 수질이 가장 깨끗한 것으로 알려진 섬진·보성강 유역에서 이 같은 검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 다른 하천·강·호소 등의 사정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 72